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수 태진아가 만난 하나님

-가수 태진아-



가수 태진아! 언젠가 무일푼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을 하다 '옥경아'로 유명한 이옥형 씨와 결혼을 했지만 배를 꿈기는 마 찬가지. 아내가 간신히 돈을 모아놓으면 태진아는 아내 몰래 돈을 빼내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러니 아내와 사이가 좋을리가 없었고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태진아는 되레 큰소리치고 되레 짜증을 부리며 허구헌날을 술과 담배로 지새우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터인가 밤만 되면 슬그머니 나가서 새벽벽에야 들어오는 아내가 의심스러워 술이 취한채 물어보니 아내는 어머니와 새벽기도회를 다녀오는것임을 알았다.

“앞으로 그딴곳에 가지 말어. 알았어?”

그랬더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는 나는 당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내 고집대로 해야겠어요. 어머니가 양이시래요. 병원에서고 고치지 못한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태진아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말이

“이봐 그 교회 어디야? 나도 좀 가보자”

처음 교회에 가 본 날 들려오는 찬송가의 가사 소리는 그의 가슴 속 깊은곳까지 파고 드는 것 같았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337장이 모두 끝날 때 쯤 어느새 태진아 집사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뒤로 태진아는 신앙을 소중히 키워서 집사의 직분까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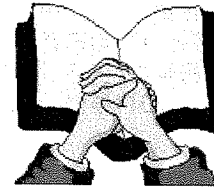
인터뷰하는 작가에게 그는

“ 앞으로 복음서가 테잎을 내려고 하는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비밀이라면서 얘기했다

“사실은 내가 교회 나가고 나서 한달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교회 앰프 시스템을 최고급을 싹 바꿔서 설치해 주었거든...”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3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8월 15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하버드 대학의 학생 강령



첫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있음을 명심한다.

둘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두번 성경을 읽으므로써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을 얻을 수 잇는 곳은 대학일 것이며, 그 중에서 세계 최고로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이 손꼽습니다. 그러나 허버드대학이 1646년 위의 학생 강령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버드대학 학생들은 이 시대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랜 그렸지▶ 삼림 “크림빵”  
아끼면서 먹으려 빵 두개 사이에 하얗게 들어있던 크림을 먼저 혀로 핥다보면 코 끝에 하얗게 크림이 묻었습니다. 동생이 먹는 크림빵을 별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며 형이 야금야금 먹던 코메디 소재로 TV에서 자주 이용되기도 했던 크림빵. 왜 크림빵 겉표면에는 뾰족한 것으로 누른 자국이 여러개 있었는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억의 크림빵, 지금 다시 눈에 띈다면 차마 그때가 생각나 손에 들고만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꼭 할 말▶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신 판단이 옳았어요!

◀배우자에게 해선 안될 말▶  
내가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